

이수만 · 방시혁 · 이미경 · 봉준호 美 '버라이어티 500' 에 이름올려

지난 1년간 성과 토대 세계 미디어 시장 이끄는 영향력 있는 리더에 선정

SM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방시혁 빅히트엔터테인먼트 회장,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등이 세계 엔터테인먼트 업계 리더 500인 명단에 올랐다. 미국 버라이어티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버라이어티 500(Variety 500)'을 발표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세계 미디어 시장을 이끄는 영향력 있는 리더 500인을 선정하고 있다. 이수만 프로듀서는 '버라이어티' 발표가 시작된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팀 쿡 애플 CEO,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등과 함께 4년 연속 선정됐다. 버라이어티는 이 프로듀서에 대해 "현대 케이팝(K-POP)의 개척자로서 여전히 강력하며, SM 유니버스(Universe)의 확장을 계속해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동방신기, 엑소 등 다수의 그룹을 범아시아적으로 성공시켰음은 물론, 미국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며 업계 선두주자가 됐다"면서 "최근 K-팝 어벤저스로 불리는 연합팀 슈퍼엠(SuperM)을 프로듀싱하며 K팝의 아버지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고 조명했다. 이 프로듀서는 올해도 미국 빌보드가 글로벌 음악산업의 미래를 만드는 데 탁월한 능력을 지닌 리더를 발표한 '2020 빌보드 임팩트 리스트'에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와 함께 버라이어티는 올해 처음 '버라이어티 500'에 이름을 올린 방 의장에 대해 "한국의 보이밴드 '방탄소년단'을 모른다면, 당신은 어디에서 살아 왔는가?"라며 '방탄소년단'의 세계적 성공을 이끈 방 의장의 성과를 소개했다. 버라이어티는 방 의장이 음악 제작뿐만 아니라 사업 다각화에 힘쓰고 있는 점도 주목했다.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Weverse)를 개발하고, 게임 회사 수퍼브와 소스뮤직, 플래디스 등 여러 레이블을 인수한 사실을 언급하며 "올 상반기 한국의 앨범 판매 순위 100위 내 판매량의 40%가 빅히트 레이블즈 아티스트들의 작품이었고, 지난 10월 기업 공개 때는 기업 가치 8조원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방 의장은 올 초 '2020 빌보드 파워 리스트', '2020 빌보드 인디 파워 플레이어스'에 잇따라 선정됐고 지난 6월에는 '포니정 혁신상'을 받

았다. 이미경 CJ 부회장은 올해 처음 명단에 올랐다. 버라이어티는 영어 이름 '미키 리'(Miky Lee)로 이 부회장을 소개하면서 '기생충'을 제작하고,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에서 열린 '케이콘(KCON)'으로 K팝을 미국에 알린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버라이어티는 이 부회장이 "4억 달러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제국을 소유하고 있다"면서 "세계에 한국 영화와 음악,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봉 감독은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해당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버라이어티는 봉 감독이 연출한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의 100년 역사상 최우수 작품을 받은 최초의 비영어 영화라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또 작품상 외에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까지 4관왕을 차지해 역사적인 기록을 세운 점도 분명히 했다. 봉 감독은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해당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버라이어티는 봉 감독이 연출한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의 100년 역사상 최우수 작품을 받은 최초의 비영어 영화라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또 작품상 외에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까지 4관왕을 차지해 역사적인 기록을 세운 점도 분명히 했다. 버라이어티는 "봉준호 감독은 사회적 문제를 개인 드라마로 풀어낸다. 영화 '살인의 추억'(2003) 이후 한국 영화의 아이콘이 됐다"고 전했다. /뉴시스



정음시립농악단과 정음시립합창단의 합동 정기공연이 30일 오후 10시 LG헬로비전을 통해 방영된다.

“가족과 함께 안방에서 공연 즐겨요”

정음시립농악단 · 합창단 정기공연
오늘 밤 10시 LG헬로비전서 방영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만나기 어렵게 된 정음시립농악단과 정음시립합창단의 합동 정기공연이 30일 오후 10시 LG헬로비전을 통해 방영된다. 이번 공연은 '희망, 그리고 희망'이란 주제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로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1부에서는 박미 지휘자가 이끄는 시립합창단이 강강술래와 아리랑, 썬 메들리라는 대중적인 노래를 선보인다. /정음=김태환 기자

전통적인 합창단의 합창에 뮤지컬적인 율동을 가미해 함께 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냈다. 2부에서는 박성우 단무장이 이끄는 시립농악단의 '샘 고을 풍류'와 '녹두에 피는 꽃'이 이어진다. 샘 고을 풍류는 정음농악의 실장구 가락과 판굿 장단, 내년 한 해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소리가 함께 어우러진 정음의 흥을 보여준다. '녹두에 피는 꽃'은 마당에서 펼쳐지던 농악을 무대화한 작품으로 판굿과 황해도 지역의 봉산탈춤 중 사자마당, 경기·충청 지역의 남사당놀이 중 버나놀이, 영남지역의 채상소고놀이 등 연희적인 요소를 담았다. /정음=김태환 기자

익산 도심 곳곳 빛으로 물든다

'2020 공공미술 상상(想像)특목 프로젝트'
서동공원 · 문화예술의 거리 일원
'가고싶은 대로' 등 빛 조형물 설치

익산 도심 곳곳에 빛이 더해지면서 야간 관광 명소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시는 29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미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3차 추경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2020 공공미술 상상(想像)특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로 서동공원 일원과 문화예술의 거리, 익산역 등에 다양한 빛 조형물이 설치된다. 이번 사업은 (재)익산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장성국)이 주관하고 5개 작가팀(총감독 이광진)의 작가 40인이 참여해 ▲천년의 풍경을 새기다 ▲가고싶은 대로(大路) ▲창조적 숲대 ▲콘크리트월터 ▲아리(禮里)보아도 내 사랑 등 5가지 주제로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천년의 풍경을 새기다'는 서동 선화의 애절한 사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천년의 사랑', 서동과 선화가 다정하게 나란히 앉아 있는 너랑 나랑, 사랑 나무를 형상화한 '러브트리', 위로와 희망을 건네는 '감성캘리그래피' 등의 작품을 금마저수지 수변공간과 나무 데크에 설치해 서동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포토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조적 숲대'는 마한의 발상지인 익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숲대를 예술가들의 손길로 다양한 색깔을 넣어 제작하여 지역의 발전과 안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으며 마한관에서 금마저수지로 내려가는 길에 설치되어 있다. '가고싶은 대로(大路)'는 익산의 시화인 국화를 대형 LED 조형물로 만들어 서동공원 선화정 옆에 설치하였으며 국화 꽃잎이 여러 색깔로 변해 다양한 풍경을 연출한다. 이밖에도 관광객들에게 편의의 여유를 줄 '콘크리트월터'가 서동공원 미끄럼틀 옆에 설치되며 익산역과 문화예술의 거리 당분백화점에 '아리(禮里)보아도 내사랑'을 설치하고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익산시는 '2020 공공미술 상상(想像)특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로 서동공원 일원과 문화예술의 거리, 익산역 등에 다양한 빛 조형물이 설치된다.

공공미술프로젝트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익산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축제팀(063-843-881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정양원 기자

한국문화재단, '문화유산 방문 코스' 랜선 여행 영상 제작

한국문화재단이 2020년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의 일환으로 총 7편의 문화유산 방문 코스' 랜선 여행 영상을 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문화유산 방문코스의 여행테마를 부각하기 위해 360도 VR(가상현실), 항공촬영 등 다양한 촬영기법을 활용해 몰입감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각각의 여행코스에는 유튜브, 국악인, 아나운서 등이 참여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낸다. 문화유산 방문코스는 총 7개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포함된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지리적 특성과 주제 유사성을 고려해 선정됐다. ▲유구한 역사의 '천년정신의 길' ▲백제 숨결이 가득한 '백제 고도의 길' ▲남도 선율이 흐르는 '소리길' ▲비탈이 머무는 자연의 낙원 '실화와 자연의 길' ▲고인돌부터 궁궐까지 역사적 자취를 만나는 '왕가의 길' ▲한국 성리학의 산실 '서원의 길' ▲전통과 불교문화가 어우러진 '수행의 길' 등이다. 재단은 '문화유산 방문코스' 랜선 여행 영상의 유튜브 채널 공개를 기념해 이벤트도 개최한다. 참여방법은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유튜브 채널에서 방문코스 VR 영상 속에 숨겨진

랜선방캠(랜선으로 만나는 방문캠페인) 마크를 찾아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에 인증하면 된다. 참가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 /뉴시스

'2020 아리랑 대축제? 다시, 아리랑' 30~31일 국악방송 · 아리랑TV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과 국악방송, 아리랑국 제방송은 '2020 아리랑대축제(다시, 아리랑)'(Revival of Arirang: Korea's Heartbeat) 공연을 30일, 31일 양일간에 걸쳐 국악방송TV와 아리랑TV를 통해 국내외에 방영한다. '2020 아리랑 대축제'는 '다시, 아리랑'이란 제목으로 아리랑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둔 아리랑 재해석 콘서트다. '2020 아리랑 대축제(다시, 아리랑)'은 대규모 콘서트 형식이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편의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됐다. 전 세계 한류팬 100여 명이 온라인 관객으로 참여해 녹화가 진행됐고, 해외 160만 구독자를 보유한 Arirang K-pop 유튜브 채널에서 방문코스 VR 영상 속에 숨겨진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